



삼다수 마스터스 개막... 골프여제들의 승부

고진영·박인비와 국내 톱랭커들 대거 출전 어제 폼나무레슨·포토콜·공식기자회견 일정 소화 세계 1위 고진영 "평정심으로 좋은 모습 보일 것"

세계 여자골프를 휩쓸고 있는 고진영과 박인비와 함께 국내 톱랭커들이 대거 출전하는 제6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9일 개막한다.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대회코스에서 공식연습라운딩으로 실전감각을 익힌 골프 여제들은 이날 오후 폼나무레슨과 포토콜, 공식기자회견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대회 장소인 제주 오라컨트리클럽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는 일찌감치부터 빈 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취재 열기로 뜨거웠다. 올해 LPGA 메이저 대회 2승을 거두며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부문 1위, 상금과 세계 랭킹에서도 선두에 올라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는 고진영이 단연 화제였다.

고진영은 기자회견에서 "1년 정도 만에 한국에 오게 됐는데, 대회에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선

수의 의무이기도 하고, 제 자신의 목표도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고진영은 또 세계랭킹 1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1위할 때는 좋은 생각만 들었는데, 잠깐 2등으로 내려왔을 때 '경기력만 뒷받침된다면 이 자리는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자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1위라는 생각을 크게 한다기보다는 어떡하면 내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인비는 "다른 선수들이 경기할 때는 샷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진영이는 전성기인 것 같다"며 "샷이 잘되고 퍼트가

안되면 상위권 성적내기 힘들데 퍼트도 잘되고 드라이브 거리도 좋다. 여러분이 한국여자골프의 또 다른 역사를 보고 있다"고 후배를 추켜세웠다.

이날 폼나무레슨과 포토콜에 이어 기자회견에는 두 여제와 최혜진과 조정민도 함께했다.

제주개발공사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광동제약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 오라컨트리클럽(파 72/6666 야드)에서 진행된다. 2019 KPGA 투어의 하반기 첫 대회이며, 올해는 상금 2억원 증액을 결정해 총상금 8억원, 우승상금 1억6000만원 규모로 치러진다.

표성준기자 sjpvo@ihalla.com



8일 광주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9 광주 FINA 세계 마스터스 수영선수권대회 아티스틱 수영 여성 40-49세 솔로 프리 부문에 출전한 유나미(한국)가 정태훈의 '5·18' 노래에 맞춰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노래로 연기... 유나미 아티스틱 '금'

광주 세계마스터스수영대회 "아름·슬픔 위로되길 소망"

8일 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서구 영주종합체육관 아티스틱 수영 경기장에서 때 아닌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노래가 울려 퍼졌다.

포크 가수 정태훈 씨가 만든 노래 '5·18'에 아티스틱 수영 메달리스트 유나미(41) 씨의 아름다운 몸짓이 더해지며 광주항쟁의 아픈 역사는 예술로 승화됐다.

이날 아티스틱 40-49살 부문 솔로 프리에 출전한 유씨는 이름이 호명되자 당당한 걸음으로 경기장 앞에 섰다. 광주에서 5·18 곡을 연기로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번 대회를 출전하기로 결심한 유씨는 순서를 기다리며 긴장된 모습을 보였지만 무대 위에 선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감 있는 연기를 펼쳤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가볍게 입수한

그는 처음부터 격렬한 몸짓으로 1980년 5월 18일의 아픔을 표현했다. 물속에서 힘찬 발차기 연기를 할 때마다 튀어 오르는 물방울은 5·18 희생자와 유족들이 흘린 눈물로 비쳤다.

격렬함과 부드러움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2분 30초 동안의 수중 연기는 기도하는 듯한 포즈로 마무리됐다. 이 포즈에는 '5·18' 관련자들의 슬픔과 아픔이 위로되길 소망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유씨의 열정적인 연기가 끝나자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지난 5일 테크니컬 솔로에서 판소리 '심청가'를 배경으로 독창적인 연기를 펼쳐 1위를 한 유씨는 이날 또다시 1위를 차지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1998년 방콕아시아게임에서 은메달을 땀던 유씨는 지난 2000년과 2004년 올림픽에 출전하는 등 실력과 선수로 인정받다 2005년 은퇴했다. 연합뉴스



제6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 출전하는 골프여제 고진영과 박인비 등 국내외 톱랭커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 네번째),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오른쪽 세번째)과 8일 오라컨트리클럽에서 포토콜 행사에 참여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상국수습기자

벤투호, 월드컵 2차예선·평양원정 준비

이달 26일 선수 명단 발표 9월 5일 원정 평가전 치를듯



6월 평가전을 끝으로 휴식기에 들어간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준비에 들어갔다. 파울루 벤투(사진) 축구 대표팀 감독은 9월 시작되는 월

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소집 명단을 26일 발표한다. 대표팀은 9월 2일 소집될 예정인 가운데 같은달 5일 예정된 평가전은 원정으로 치를 전망이다.

월드컵 2차 예선 첫 경기가 9월 10일 투르크메니스탄 원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대표팀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과 1차전을 닷새 앞두고 치를 평가전 상대로 현지 적응이 가능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직항이 있는 도시의 국가를 찾고 있다"면서 "중동권 팀들을 9월 5일 평가전 상대로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10월 15일 평양 원정은 오후 5시

30분 김일성경기장에서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동 경로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표팀은 2017년 4월 북한 평양 아시아컵 예선에 출전했던 여자대표팀처럼 항공편으로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육로를 이용하거나 직항 항공편으로 방북할 수도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의 방북 일정 및 방법과 관련해 조만간 통일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11월 평가전 장소와 상대 팀도 고민거리다. 대표팀은 11월 14일 레바논과 월드컵 2차 예선 4차전 원정 경

기가 잡혀 있다. 11월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 대기가 같은 달 19일 예정돼 있어 레바논과 원정 직구 평가전을 벌인다. 11월 19일 평가전은 대표팀의 올해 마지막 A매치이기 때문에 축구협회는 안방에서 개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벤투 감독은 월드컵 2차 예선 때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한 최정에 멤버로 대표팀을 꾸릴 예정인 가운데 소집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선수 점검에 나섰다.

벤투 감독은 주말인 11일 K리그 울산 현대-대구FC 경기가 열리는 울산 종합운동장을 찾아 6월 평가전 때 소집됐던 골키퍼 김승규, 미드필더 김보경, 수비수 김태환(이상 울산), 골키퍼 조현우(대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년 만의 올림픽 본선 도전 남자배구, 네덜란드와 첫대결

한국 남자배구가 20년 만의 올림픽 본선 무대를 향한 첫 도전에 나선다.

임도현 감독이 이끄는 남자대표팀은 9일부터 11일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 세계 예선에 같은 B조의 네덜란드(세계 15위), 미국(2위), 벨기에(12위)와 조 1위에 주는 올림픽 직행 티켓을 놓고 격돌한다.

한국은 9일(한국시간) 오후 11시 네덜란드와 첫 경기를 벌이고, 10일

오전 2시 미국, 11일 오전 2시 벨기에와 차례로 맞붙는다.

2000년 시드니 대회 이후 2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은 세계랭킹 24위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권 확보는 사실상 쉽지 않다.

임도현 감독은 "강한 상대들과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면서 "많이 응원해주시면 선수들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번에 올림픽 티켓을 따지 못하면 내년 1월 열리는 대륙별 예선에서 출전권 확보에 다시 도전한다. 연합뉴스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흥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